

유아교육기관 방과 후 특별활동에 대한 의미 탐색

Exploring the Meaning of Extracurricular Specialized Activ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정인선*, 김보림**, 박지선*
목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용인송담대학교 유아교육과**

In-Sun Jeong(whanb-2@hanmail.net)*, Bo-Rim Kim(brangei@hanmail.net)**,
Ji-Sun Park(jisunp@mokwon.ac.kr)*

요약

본 연구는 이론적 견해와 현실의 불일치 속에서 점차 확대되어 가는 유아교육기관의 방과 후 특별활동에 대한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방과 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 세 곳의 유아교육기관의 수업현장을 관찰하였으며 강사와의 면담을 실시하여 그 의미를 탐색해 보았다. 연구 결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방과 후 특별활동은 유아들에게 '새로움과 즐거움의 공존', '학습으로서의 의미', '다양한 교수 매체 경험'과 정규수업과 다른 현실 속에서 '피할 수 없는 한계'로 분석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질 높은 방과 후 특별활동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정규교육과정과 방과 후 특별활동 과정이 상호보완적 협의와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하며 나아가 바람직한 방과 후 특별활동 과정을 위하여 수업환경 개선 및 강사의 지속적인 연수와 교육이 요구되어진다.

■ 중심어 : 유아 | 특별활동 강사 | 유아교육기관 | 방과 후 특별활동 | 의미 탐색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the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because the discussions and the discrepancy between theoretical viewpoint and reality are gradually expanded. For this purpose, the classes of three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s were observed, and interviews with the instructors were conducted where extracurricular activities programs were implemented. The meaning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s were 'coexistence of newness and pleasure', 'meaning as learning', 'diverse teaching media experience' and 'inevitable limit' in the reality of formal lessons and other situ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make comprehensive and complementary approaches between the formal curriculum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for the future high quality extracurricular activity education. Continuous training and education of the instructor are required for better extracurricular activities.

■ keyword : Young Children |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structors |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 | Extracurricular Activities | Meaning Exploration |

I.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도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유치원 방과 후 특성화 활동이라는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유아교육기관의 방과 후 특별활동 운영의 도입 배경은 1992년 초등교육과정에서 교과와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전인교육의 일환으로 방과 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으나 이후 사교육의 열풍과 부모들의 요구로 인해 1995년을 기점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도 방과 후 특별활동 운영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1]. 이는 부모들의 조기교육열이 취학 전 유아기까지 확대되면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방과 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2].

당시 초기에는 법적 근거나 규제 없이 시작되었으나 점차 정규교육과정을 침해하는 등 영유아 발달에 부적합한 활동으로 전락하자 정부차원에서의「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3] 및「특별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지침[4]을 마련하여 철저한 지도 감독을 명시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어린이집에 적용하게 되었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5]는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의 핵심과제로 '유치원 종일제 운영내실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 세부 추진 계획으로 방과 후 특성화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추진 과정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방과 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활동이 더 이상 법적규제의 대상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기초가 되었다[6].

그러나 유아교육과정은 초등교육과정과 달리 놀이 중심 주제통합교육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교과 외, 활동'이라는 개념을 규정짓기 어려우며 유아의 경험과 통합을 분절시키고 교과 위주의 기술과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방식[7]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조기교육 및 방과 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8-11]. 반면,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유아교육기관의 방과 후 특별활동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12] 대상 연령도 점점 하향화 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수준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 과목 중 체육, 예술, 과학 및 언어 분야를 토대로 유아교육기관에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음악, 과학, 영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을 관찰하여 방과 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의미를 심도 깊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이론적 관점과 현실의 불일치 속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방과 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며 앞으로의 방향성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육기관 방과 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유아교육기관의 방과 후 특별활동은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 이외에 이루어지는 활동프로그램으로 방과 후 과정에 외부 강사에 의해 별도의 시간을 계획하여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을 의미한다[4]. 아울러 유치원에서의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 또한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학부모의 자율적 수요에 의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방과 후 특별활동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 [1][7][13-21]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95.4%가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3], 전국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의 69%가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유아가 90%, 영아는 51.9%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또한 황혜숙[13]의 연구에 의하면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만2세 영아 중 91.9%가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교육기관의 방과 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학부모의 교육열 및 시대적 요구 속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방과 후 특별활동에 대한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들도 살펴 볼 수 있는데 먼저, 부정적인 측면은 특별활동 강사의 수업방식과 질에 대한 문제점[14], 유아 발달수준의 적합성 인식부족, 보여주기 식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문제점[17]등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긍정적 측면도 보고되고 있는데, 방과 후 특별활동에 대한 교사 및 학부모 인식에 관한 연구[13-16]들에서는 방과 후 특별활동 실시가 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고하였으며, 원장과 부모의 인식 비교연구[7] 및 교사인식에 관한 연구[22] 등에서도 방과 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적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특히, 서은경곽승주[7]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집단보다 원장집단이 교육적 효과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실제 유아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생활하는 교사 및 원장들은 방과 후 특별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임으로서 이론적 관점과는 부합되지 않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이와 같이 방과 후 특별 활동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상반된 결과와 더불어 유아교육기관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어떠한 기준과 합의도 규명하지 못한 채 혼란을 겪고 있다[23][24]. 이는 국가적 차원의 교육과정 및 정규수업과 달리 방과 후 특별활동의 경우, 체계적인 관리감독 및 평가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생기는 문제점이자 한계이기도 하다[25].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방과 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교실 현장을 관찰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과 후 특별 활동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실태 조사나 부모의 인식 혹은 교원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이며 특별활동 수업이 이루어지는 실제 교실 현장을 심도 있게 관찰하고 강사와의 면담을 실시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치원에서 영어담당교사가 사용하는 교수전략을 중심으로 유아 반응을 살펴본 연구[26], 유치원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 담당강사의 인식 및 수업의 실제[25]등의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특정 과목을 주목하거나 단1회의 수업을 관찰한 연구로서 실제 방과 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진행

되는 수업과정에서의 깊이 있는 관찰과 의미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III. 연구방법

1. 현장 관찰 장소 및 연구 참여자

1.1 현장 관찰 장소

본 연구는 방과 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 경기 두 곳의 병설 유치원과 대전시 S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졌다. 음악 프로그램 관찰 현장은 대전시 S구에 소재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으로 1997년 개원하여 2014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다. 학급 구성은 만1세, 만2세, 만3세 총3반이며 연구가 진행된 교실은 만3세 행복반 15명이다. 과학 프로그램 현장은 경기도 소재 병설유치원으로 1983년 개원하였으며 만4세, 만5세 총 2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가 진행된 교실은 만5세 하늘반 15명이다. 영어 프로그램 현장은 서울 소재 병설 유치원으로 1998년 개원하였으며 만4세, 만5세 총 2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가 진행된 교실은 만5세 열매반 21명이다.

1.2 연구 참여자

본 연구를 위하여 원장과 담임교사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유아들의 경험에 대한 좀 더 맥락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별활동 강사와의 협조를 구하였다. 특별활동 강사의 기본적인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특별활동 강사의 일반적 배경

과목	이름	학력	전공	연령	경력
음악	김**	대졸	음악	만48세	25년
과학	임**	전문대졸	유아교육	만47세	5년
영어	황**	대졸	유아교육	만47세	17년

2. 연구 자료 수집

방과 후 특별활동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하여 선정된 세 곳의 방과 후 특별활동 수업을 각 6회 씩 현장 관찰을 진행하였다. 예비 연구를 위하여 2017년 9월 6일과

7일 양일간에 걸쳐 수도권에 위치한 어린이집1곳, 유치원 1곳의 방과 후 특별활동을 관찰하였다. 특별활동 관찰만으로 의미 탐색하는 것이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강사와의 면담도 함께 진행하도록 수정하였다. 본 연구는 2017년 9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각 3과목의 특별 활동을 매주 1회씩 6회, 총 18회를 관찰하였다. 연구자는 심도 깊은 참여 관찰을 위해 주 1회 특별 활동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에 함께 참여하여 보조교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업을 관찰하였으며 유아들은 연구자들을 선생님이로 호칭하였다. 수업은 1회당 30분에서 40분 정도로 진행 되었으며 모든 수업과 심층 면담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스마트폰의 카메라와 녹음 기능으로 촬영되고 녹음되었다. 또한 관찰 자료와 녹음 자료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료가 왜곡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빨리 기록으로 남겼다.

3. 자료 분석 및 해석

연구 기간 동안 관찰과 면담으로 수집된 자료는 현장 노트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편견이나 선입관을 배제하기 위해서 관찰자 코멘트를 구분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전사본을 Corbin과 Strauss[27]가 제시한 방법과 같이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주요한 내용을 주제별로 코딩한 후, 주제의 의미를 발견하는 단계로 분석하는 연속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과 해석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사본을 바탕으로 애매한 표현이나 모호한 답변에 대하여는 연구 참여자에게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연구자 3인이 각자 분석 및 해석한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연구자 개인의 주관적 개입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질적 연구 방법 전문가 1명에게 내용과 해석을 검증하는 검토의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1차 적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다시 연구 참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해석 부분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해석의 오류를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IV. 연구결과

유아교육기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과 후 특별활동이 갖는 의미를 탐색하기 위하여 현장 관찰을 실시한 결과, 방과 후 특별활동은 크게 새로움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의미, 학습을 위한 의미, 다양한 교수매체를 경험하는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1. 새로움과 즐거움의 공존

방과 후 특별활동 시간은 무엇보다 유아들에게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특히 음악활동은 유아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정서를 표현하는 시간이 되었다. 수업을 진행하는 김 강사는 방과 후 특별활동 시간이 유아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시간보다는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원한다고 하였다.

예전에는 음악적 요소나 개념들을 잘 이해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아이들이 음악을 재밌게 즐기고 있는지 스스로 참여하는지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잘 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017.11.13. 김강사 면담)

실제적으로 김강사와 수업을 하는 유아들은 매우 즐겁게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수업이라기보다는 즐겁게 교사와 놀이하는 모습으로 보여 지기도 하였다. 특히 음악 수업에서는 첫 수업부터 유아들이 재미를 느끼며 모든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즐거움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김 강사: 드디어 동굴에 도착했어. 커다란 곰이 나타나면 모두 왔던 길을 거꾸로 돌아서 도망가자.

(유아들은 동그란 파라슈트 주위를 돌며 노래와 함께 곰 사냥을 떠나는 활동을 한다)

김 강사: (큰소리로 곰 제스처와 함께 곰을 흉내내며) 곰이다!

유아들: 와야! 도망가자!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며 신나게 파라슈트 안으로 들어간다.)

김 강사: 하하하! 애들아,, 이불속으로 들어가,

(여기저기서 '어떡해' 긴장된 목소리와 함께 즐거움을 나타내는 웃음소리가 들린다)

유아: 선생님, 또 가요. 재밌어요. 또 해봐요~~

(2017. 10.25. 참여 관찰 중)

이러한 즐거움을 경험하는 수업은 음악 수업 뿐 아니라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과학 특별 활동 시간에도 관찰되어졌다. 만5세 하늘 반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수업의 모습은 마치 미술 수업 혹은 신체 활동 수업과도 비슷해 보였는데 과학 수업이 만들기, 실험, 관찰, 놀이, 게임, 퍼포먼스 등의 통합적 활동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유아들은 즐거움을 느끼며 과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임강사: 선생님이 외치면 같이 부부젤라를 부는 거야.

대한민국!

유아들 : 부부부 부우웅!

임강사 : 다시 한번 대~한민국

유아들 : 부부부 부우웅!

임강사 : 한번 더 할까? 대~한민국

유아들 : 부우웅! 하하하!

(2017. 10. 10. 과학 참여관찰)

유아들은 부부젤라의 크기나 길이에 따라 소리의 크기가 다름을 느끼며 한 목소리로 힘차게 소리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과학수업이 끝난 후 실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부부젤라로 축구경기 응원하는 모습을 영상을 감상하면서 더욱 즐거움을 느끼는 듯 보였다. 또한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게임을 하는 등의 과학 특별활동 시간 역시 즐거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유아들은 자신이 만든 로봇팔을 이용해 종이컵 나르기 게임을 할 때 가벼운 종이컵을 많이 집어 나르는 게 잘 되자 성취감을 느끼며 기뻐하였다.

유아1: (자신이 만든 로봇팔을 이용하여 미술영역에서 색연필을 잡았다 놓았다 하며)선생님 봐 봐요. 제가 색연필 잡았어요.

임강사 : 우와! 잘 된다!

- 중략 -

임강사 : 로봇팔 완성한 친구들은 모이세요.

종이컵 집기놀이를 할거예요.

유아2 : (종이컵을 로봇팔로 집으면서 신나는 목소리로)야호! 잡았다!

(2017. 10. 16. 과학 참여관찰)

이렇듯 과학 특별활동 역시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으로 관찰되어졌다.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수업 역시 즐거움과 재미의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영어 시간이지만 시작 인사(Hello Song), 마치는 인사(Goodbye Song), 알파벳 노래, 파닉스 노래 같이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진행되어지는 모습이 마치 음악수업 같기도 하고 신체활동 같기도 하였다. 유아들은 익숙한 노래가 나오면 목소리가 커지고 리듬에 따라 몸을 움직이기도 하였다.

황 강사 : A부터 Z까지

유아 1: 이제 이걸 너무 쉬워.

황 강사 : 이걸 너무 쉽지? A says ae, ae, ae, APPLE,

B says b,b,b, BANANA, C says c,c,c,

CRYAON

(다함께 한 목소리로 동작과 함께 알파벳을 익힌다.)

(2017. 11. 14. 영어 참여관찰)

황강사 : Story song을 틀어 주고 교재를 보여주며 노래를 부르며

강사 : What do you do? (손유희)

유아들 : I am a magician (마술사 동작 표현)

교사 : abracadabra

교사와 유아 : What do you do?

I am a singer(가수 동작 표현)

(2017. 10.10 참여관찰)

이렇듯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방과 후 특별활동은 음악, 과학, 영어 과목에 상관없이 모든 프로그램에서 유아들이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이었고 매우 재미있게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이었다.

2. 학습의 의미

교실에서 관찰되어진 방과 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즐거움의 의미도 있었지만 그 안에 학습의 의미도 가지는 것으로 보였다. 음악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유아들은 매우 즐거워하면서 음악적 개념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김강사: (틱택블록을 연주하며) 애들이 무슨 소리가 나는지

들어볼까?

유아1: 탁탁탁탁 소리가 나오. /

유아2: 말소리 같아요. 이랴 이랴 말이 달리고 있어요.

- 종락 -

김강사: 그럼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몸으로 표현해볼까?
(김강사는 다양한 리듬으로 ♪, ♫, ♪) 탁탁블럭을 연주하다 멈추기를 반복한다. 유아들은 리듬 패턴에 귀 기울이며 움직임을 반복한다. 유아들은 리듬 패턴에 귀 기울이며 움직임을 반복하며 즐거워한다. 이러한 활동을 3-4분 정도 반복한 반복한다.)

- 종락 -

김강사: 우리도 리듬에 맞춰 악기 연주 할 수 있을까?
(김강사는 여러 가지 리듬악기를 보여주며 주제곡에 맞춰 리듬악기 연주 시범을 보여준다.)

유아들: 네!! (모두 손을 들며 대답한다.)

(유아들은 주제곡 노래에 맞춰 자신이 연주하는

부분에서 박자에 맞춰 악기 연주를 한다.)

(2017.9. 29. 음악 참여관찰)

이와 같이 김 강사는 하나의 주제 안에서 다양한 음악 활동유형(소리탐색, 노래 부르기, 신체표현, 음악 감상, 악기연주)을 자연스럽게 통합하며 다양한 리듬을 신체 움직임과 악기연주로 경험시키며 음악적 개념을 익히도록 하였다.

과학 특별활동 역시 즐거운 통합적 활동으로 진행되면서도 과학적 기본 원리와 학습이 일어나도록 돕는 모습이 보였다. 또한 무게중심이라는 과학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 우리 몸을 이용해서 찾아보기, 자와 손가락 등의 생활 물건들을 이용해서 찾아보기, 테이프 속대와 건전지를 이용한 실험도구를 이용해서 무게중심 관찰하기, 시소 실험하기, 오펝이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무게중심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여러 가지 접근법으로 보여주었다. 유아들도 즐겁게 활동에 참여했고 이 과정을 통해 어려운 개념을 쉽게 이해하는 듯 보였고 자연스럽게 과학적 어휘를 사용하는 모습도 관찰되어졌다.

임 강사 : 그럼 이번에는 눈을 감고 한발 들고 서있어 보자.

유아1 : 아! 아! (중심잡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고함을 지르며 온 몸을 세차게 흔든다)

임 강사: 이제 양팔을 펴 볼까요? 한쪽 다리는 들고 양팔은 펴고... 어때?

유아2 : 잘 안돼요! (한쪽발로 교실을 뛰어다니며 소리친다)

유아들 : 하하하

- 종락 -

임 강사 : 자의 무게중심을 찾아볼게요.

(손가락하나로 자의 중심을 잡는다)

친구들도 넘어지지 않게 중심을 찾을 수 있어요.

- 종락 -

임 강사 : 이번에는 손가락의 무게중심을 찾아보세요.

유아 2 : 했어요.

임강사 : 오! 저 친구는 중심을 잡기 위해 손가락을 뒤집었지. 뒤집을 수도 있고 안 뒤집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무게 중심을 잡아보세요.

유아들 : 됐다! 됐다! 우와!

(2017. 9. 18. 과학 참여관찰)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무게 중심을 찾아가는 모습은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하였지만 유아들이 스스로 무게 중심을 찾아나가기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으로 보여졌다. 또한 과학적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유아들도 자연스럽게 과학적 어휘를 익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영어 특별활동 역시 노래 부르기, 손유희나 율동하기, 동화 듣기, 게임하기, 역할극으로 표현해보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간단한 문장이나 단어를 듣고 영어를 익히는 학습 활동으로 진행되어짐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영어 특별활동 수업은 노래를 활용한 활동이 가장 많았는데 노래는 원어민 음성으로 녹음된 것으로 그림카드(알파벳, 단어), 교재, 손유희나 율동이 함께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멜로디가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노래를 반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히게 하는 방법이 활용되어졌다.

황 강사 : Brown Bear, 이 책 집에 있는 사람?

유아1 : 나 알아요.

(황 강사는 책을 보여주며 함께 노래를 부른다. 음원파일 이 노래의 강약 변화를 주며 분위기를 흥겹게 도와준다)

다함께: Brown Bear Brown Bear What do you see? I see a red bird looking at me.

황 강사 : Look at me

다함께 : Red bird Red bird What do you see?

I see a yellow duck looking at me.

황 강사 : OK 잘했어.

유아들 : 한 번 더 해오

(2017. 11. 7. 영어 참여관찰)

이렇게 영어 특별활동 수업은 동화를 들은 후 동화를 이용해 음악이나 신체 활동을 함으로써 언어를 익히는 학습 활동으로 진행되어졌다. 특히 영어 수업 시간에는 적극성에서 유아들마다 차이가 있음이 두드러졌지만 대부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아들의 모습이 관찰되었다.

3. 다양한 교수 매체 경험

방과 후 특별활동 수업 시간을 이끄는 강사들은 모든 과목에서 특별한 도구를 가져오는 공통점이 있었다. 강사들이 가져오는 다양한 교수 매체에 유아들은 매우 호기심을 보이며 도구를 가지고 활동해 보길 원했다.

김 강사: (깃발을 들고) ♪ 말위에 올라 사냥을 떠나자!(스카프를 흔들며) 사냥풀카음악에 가사를 넣어 노래한다).

(유아들은 김 강사가 가지고 있는 스카프를 매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본다)

김 강사: 신나게 말을 타고 가다가 여우 굴이 보이면 살금 살금 가다가 선생님이 악기 신호를 주면 여우꼬리를 잡는 거야!

(김 강사가 유아들에게 스카프를 한 장씩 나누어 준다. 유아들은 스카프를 깃발처럼 흔들기도 하고 말을 타는 흉내도 내며, 얼굴을 가리기도 한다. 악기 신호가 울리면 서로의 스카프를 뺏는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한다.)

(2017.10.25. 음악 참여관찰)

위 사례에서 유아들은 클래식음악을 감상하는데 스카프를 활용하여 깃발 흔들기, 말이 되어 타보는 활동, 여우 꼬리를 상상하며 게임으로 연장하여 수업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외, 음악수업에서 활용하는 도구나 매체들은 고무줄, 파라슈트, 손인형, 리본막대 등을 가져와 수업에 활용하였고 유아들은 새로운 매체에 매우 호기심과 흥미를 느끼는 모습이었다.

과학 수업 역시 강사는 항상 새로운 교수 매체를 가

지고 왔다. 다음은 손전등과 병을 이용하여 수업을 이끄는 과학 특별활동의 장면이다. 유아들은 교사가 가져온 교수 매체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본인들도 이러한 교수 매체를 활용하여 활동해 보고 싶어 하였다.

임 강사 : 해님이 움직여서 그림자도 움직여요.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병이 보이죠. 이 병에 손전등을 비춰볼게요. 반대쪽을 보세요. 어때요?

유아1 : 뒤에 그림자가 생겼어요.

임 강사 : 손전등의 위치를 바꿔 볼게요. 어때요?

유아2 : 앞에 그림자가 있어요.

임 강사 : 낮게 비출 때랑 높게 비출 때랑 그림자를 비교해 볼게요. 어때요?

유아2 : 짧았다가 길어요.

(2017. 9. 25. 과학 참여관찰)

교사가 해와 그림자의 관계를 손전등과 병을 이용해서 표현하자 유아들은 더욱 호기심을 가지고 과학 활동에 참여하였다.

특히 영어 수업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을 자주 진행하였는데 황 강사는 수업에 필요한 원어민 음성 파일을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하고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하여 수업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했다. 스피커에서 어떤 노래나 동화가 시작될지 궁금하게 만들어 유아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했다. 수업 진행에 따라 핸드폰에서 음원을 선택해 이야기 노래나 동화, 교재에 나온 대화 내용을 들려주었다. 또한 멀티미디어뿐 아니라 매력적인 영어 그림책, 강사가 직접 제작한 교구, 플래시 카드나 교재와 워크북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수 매체가 유아들에게 전달되어졌고 유아들은 그러한 매체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반면, 다양한 매체에 유아들이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였지만 흥미와 매력 때문에 기본 개념이 잘못 전달되어지는 경우도 발생되었다.

다음은 자석의 척력과 인력의 개념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과학실험 매체가 별의 형상이어서 오히려 유아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과학 개념 이해를 위한 매체가 아닌 단순한 놀잇감으로 여기게 하였고 별에 대한 사실적 지식까지도 혼동하게 만든 사례이다.

임 강사 : 여기 보자.
 (손잡이 막대자석과 별 모양 의 자석 자동차의 뒷부분을 가까이 대주자 막대자석과 별 모양 자동차의 꼬리 부분이 붙는다) 이렇게 붙었어요. 어떤 극일까? 왜 그럴까?
 유아1 : 와! 죽었다. 하하하
 임 강사 : 같은 극일까? 다른 극일까?
 유아2 : (엉덩이 붙은 모습을 보고) 어, 맘매 했어 맘매해서 죽었어.
 유아들 : 아하하! 맘매! 맘매!
 - 종락 -
 유아3 : 선생님, 왜 별인데 다리가 없어요?
 임 강사 : 바퀴로 움직이는 거예요.
 (2017.10. 23. 참여관찰)

유아들은 막대자석과 별 모양 자동차 매체를 보고 자석의 원리보다는 오히려 자석이 별을 맘매했다고 생각하고 즐거워하였다. 또한 별 모양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석의 원리보다는 별인데 왜 다리가 없는지 물었고 교사는 바퀴로 움직인다는 대답을 하였다. 별이 바퀴로 움직인다고 대답한 풀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렇듯 과학적 교구 자체에 유아들은 새로움을 느끼고 호기심을 가졌지만 교수매체가 유아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4. 피할 수 없는 한계

수업 시간 대부분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아들이 있는 반면, 어떤 유아들은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가만히 있는 유아들도 있었다. 또한 피곤해 하거나 장난을 쳐서 방과 후 교사의 지적을 받는 유아들도 관찰되어졌다.

황 강사: 선생님이 퀴즈 내볼 거야, What month?
 What month is it today?
 유아 1: 10월.
 황 강사: 10월이 뭐더라?
 유아 2: octopus, octopus
 황 강사: (의자에서 바닥으로 뛰어 내리는 유아에게 소리 지르며) 태혁아! 태혁아!
 방과 후 교사 : (태혁이 옆에 앉으며)의자에 앉아서 들어가지!
 황 강사 : (바닥에 누워있는 유아의 이름을 부르며)

건호아!
 유아 3,4 : september, september.
 유아 2 : octopus, octopus.
 유아 5 : octopus는 문어잖아
 황강사: (노래로 부르며)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21명 중 6명 정도는 잘 따라 부르고 7명 정도는 부분적으로 따라 부르며 5명 정도는 잠깐씩 따라 부르다 가만히 있기도 하며 1명은 졸려하며 멍하니 있다. 1명은 교사를 바라보고 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표정의 변화도 거의 없이 가만히 앉아있다.)
 황 강사 : 10월은? October, October, October
 (2017. 10. 31.영어 참여관찰)

이렇듯 방과 후 특별활동 시간에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유아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누워있거나 가만히 앉아서 수업에 동참하지 않는 모습도 관찰되어졌다. 또한 때로는 교사의 잘못된 설명으로 유아들은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는 경우도 관찰되어졌다. 다음은 과학 특별 활동 시 교사가 기계과학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사례이다.

임 강사: 선생님 팔은 길게 늘어날 수 없지만, 이 도구는 길게 늘려서 멀리 있는 걸 잡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기계과학 이라고 해요.
 유아1: 이게 어떻게 늘어나요?
 임 강사: 어떻게 늘어나는지 보세요. 늘어나라 늘어나라! 와! 늘어났지?
 (2017. 10. 16. 과학 참여관찰)

기계과학은 움직임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하는 학문, 즉 물체나 기계 등 어떤 것이 움직일 때 방향, 속도 등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임 강사는 유아들에게 기계과학이 기계다루는 학문으로 잘못 설명하였다. 다음은 물리적 원리를 잘못 전달하는 사례이다.

임 강사 : 공기가 있어서 공기를 팍 채워놓고 공기를 밀어 내는 힘으로 로봇 팔을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게차, 포크레인, 볼도저 이런

거 알아요?

이런 기계를 사용할 때 사람이 실제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공기나 물을 넣는데 공기는 힘이 약해서 물을 넣는 거야. 그러면 훨씬 더 세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물은 기계를 빨강게 녹슬게 만들어 요. 그래서 기계에는 물을 쓰지 않고 뿔을 쓸까?

유아1 : 기름이요.

(2017. 10. 23. 과학 참여관찰)

기계의 힘을 증폭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로서 물, 공기, 기름을 사용할 수 있는데 공기를 이용한 압력은 손실이 커서 힘을 감소시킬 수 있고 물은 온도 변화에 따라 압력의 힘이 달라지므로 겨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기름을 사용한다는 파스칼의 원리를 강사는 물이 기계를 녹슬게 하므로 기름을 사용한다고 전달하였다.

첫 수업에서 과학 개념이 어렵고 유치원 유아들에게 어떻게 알려주어야 할지 몰라서 막연하게 유치원 수업을 계획했어요. 그런데 처음하고 다르게 아이들과 친밀해지면서 아이들 눈높이를 점차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수업 전 1주일 동안 어떻게 하면 유치원 친구들이 집중하고 호기심이 생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수업을 시작하고, 아이들이 과학적 원리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과학을 그렇게 쉽게 설명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2017. 10. 23. 임 강사 면담)

과학 개념의 올바른 이해와 전달의 어려움은 방과 후 과학 강사와의 개별 심층면담을 통해서도 잘 나타났다. 이는 방과 후 특별활동 강사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사례이다.

V. 논의 및 결론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방과 후 특별활동 수업이 가지는 의미 탐색을 위하여 수업을 관찰한 결과 방과 후 특별활동은 유아들에게 새로움과 즐거움을 주는 의미, 학습의 의미, 다양한 교수 매체를 경험하는 의미, 피할 수 없는 한계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기관에서 일어나는 방과 후 특별활동은 유아들에게 새로움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놀이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는 방과 후 특별활동 수업은 유아들이 수업에 즐겁게 참여하는 것을 도왔다. 이는 방과 후 특별활동에 대한 만족도인식에서 긍정적 인식을 보고한 선행 연구들[7][13][22]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방과 후 특별활동 시간이 즐거움을 경험하게 한다는 매우 긍정적 의미가 있는 반면 단순히 유아의 흥미 위주로만 흐르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방과 후 특별활동 강사들은 유아들에게 즐거움과 흥미를 주기 위하여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으나 대체적으로 강사가 일방적으로 수업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강사들의 수업 방식은 국가수준 유치원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 강사의 활동 실태를 살펴본 안혜진[25]의 연구에서 특성화 강사들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아의 흥미'라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또한 방과 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내재적 동기에 의해 시작되는 '흥미를 고려한 교육'이기 보다는 활동이 재미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흥미를 위한 교육'의 특성이 강하다고 주장한 전홍주[28]의 의견과도 유사한 맥락이다.

이러한 맥락은 방과 후 특별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평가의 방법 및 평가 실행도와 연관성이 있다. 안혜진[25]의 연구에 의하면 방과 후 특별활동 수업개선을 위한 운영 점검 관리 체계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평가 실행도 또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유아교육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실시되는 방과 후 특별활동 평가 방식은 년1-2회 부모참관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으며 단순히 교사회의를 통하여 실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방과 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즐거움과 흥미 위주의 활동으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가 과정 전반에 있어서 체계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하며 강사의 수업에 대한 평가가 단순히 유아의 반응에 국한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 방과 후 특별활동은 유아들에게

학습을 위한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사실상 방과 후 특별활동에 대한 부정적 측면은 교과위주의 가르침, 통합을 저해하는 교육방식,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교사의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된 논의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과목에 대한 측면, 교육과정과의 통합적 접근 측면, 강사의 교수학습방법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음악과 과학, 영어와 같은 프로그램은 실제적으로 교과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각각의 방과 후 특별활동 수업에서는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학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임부연 외[29]에서는 유아 교육의 특성상 교과목을 나누어 분절된 교과 지식을 배우지는 않지만 유아 시기부터 각 과목의 기본적 원리와 개념을 알고 학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교과목 위주의 가르침에 대해 부정적 시각보다는 교과를 어떠한 방법으로 잘 가르치느냐의 방법 즉, 교과목의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방과 후 특별활동에 대한 논란 중 하나는 전체 일과 속에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이 아닌 분리된 개념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방과 후 특별활동은 실제 교육과정과의 통합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각 교과영역 내에서의 학습은 통합적 활동으로 진행되는 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수업을 관찰한 시기는 9월~11월이므로 '우리나라' 또는 '기울'과 관련된 주제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방과 후 특별활동에서는 주제와의 연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리된 학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각 교과영역 내에서의 통합적 접근은 음악, 과학, 영어 모든 수업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음악 수업은 한 가지 주제 안에서 다양한 음악 활동유형 즉, 소리탐색, 노래 부르기, 신체표현, 음악 감상, 악기연주를 자연스럽게 통합하며 음악적 개념을 학습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과학 수업 역시 만들기, 실험, 관찰, 놀이, 게임, 퍼포먼스 등의 통합적 활동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 결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방과 후 특별활동 수업은 유아들에게 다양한 교수 매체를

경험하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각 과목별 강사들은 매 수업마다 새로운 교수 매체를 수업에 활용하므로 유아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이끌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립유치원의 영어교육 실태'를 분석한 양옥승 외[9]의 연구에서 유아들이 영어시간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교재와 매체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교사들의 평가와 유사한 의견이다. 본 연구에서 음악 시간은 매시간 파라슈트, 고무줄, 스카프 등의 다양한 매체와 도구를 활용하여 유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집중하게 하여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과학이나 영어와 같은 인지적 영역이 강조되는 과목에서도 다양한 교수매체는 유아들의 호기심을 유도하여 어려운 학습적 원리와 개념을 더 쉽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방과 후 특별활동 강사들은 교수 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이 매우 크다고 보고하였으며 아울러 교수자료를 구하기 위하여 활동 자료집의 복사본을 구입하거나 매력적인 교재 교구를 보유한 상업적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밖에 없음을 호소하였다[25]. 이와 같은 현상은 방과 후 특별활동 강사들이 30~40분의 짧은 시간동안 대집단으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수업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양한 매체와 도구의 활용은 필수적인 요소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에 질 높은 방과 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강사 대 유아의 비율을 조정하고 교재교구를 지원하는 등의 수업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매주 다양한 매체와 도구들이 단지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일회성으로 보여주기 식의 수업도구 개념이 아닌 유아들의 생각을 확장시켜주고 창의성을 돕는 역할과 함께 수업을 흥미롭게 전개되도록 돕는 의미로서 유아들의 발달을 돕는 긍정적 동인으로 작용하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교수 매체가 실용주의적 관점에 기초하여 지식 전달을 위한 혹은 효과적인 앎의 매력적 수단[30]으로 치중된 나머지 과학 수업 사례와 같이 매체가 오히려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방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 매체가 매력적이며 화려한 호기심 중심의 역할을 벗어나 교사와 유아를 이어주며 유아의 예측할 수 없는 반응을

고려하고 의사소통을 이끌어주는 좀 더 철학적이며 근원적 접근의 교수매체가 되도록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규수업과 달리 강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방과 후 특별활동으로서의 수업이다 보니 피할 수 없는 한계가 드러났다. 강사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측면을 살펴보면 특별활동 강사들은 특히, 흥미와 즐거움 위주의 놀이 학습 원리의 교수 방법이 반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학습에 대한 평가가 유아의 흥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주의해야 하지만 반면에 교수방법이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 또한 유아들이 흥미와 즐거움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방과 후 특별활동 수업은 유아의 개별적 발달 수준 및 내용을 고려한 개별화의 교수 학습방법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방과 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개별학습에 대한 어려움을 보고한 박민성[31]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학습방법은 유아 스스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며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개별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한 활동으로 자발적인 성취감을 느낄 수 없다고 보고한 강보라[32]의 의견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반응은 특히 영어 프로그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방과 후 특별활동 강사들은 주1회 방문하여 주어진 시간 안에 수업을 마쳐야하는 수업환경에서 모든 유아들의 발달수준과 개별능력을 인지하고 있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방과 후 특별활동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과 후 특별활동 수업이 독립된 학습의 장이 아닌 정규 과정 속에서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정규과정의 유아교사와 방과 후 특별활동 강사간의 긴밀한 상호작용과 협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방과 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방향과 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주된 요소는 강사의 질에 있음을 고려할 때[33] 교과목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유아발달 측면에서 유아와의 상호작용 및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와 다양한 교육이 요구되어진다.

본 연구에서 밝힌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방

과 후 특별활동에 대한 의미탐색 및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 후 특별활동은 유아에게 새로움과 즐거움을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실행도가 낮아 다각적인 측면에서 평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방과 후 특별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각 과목 수업에 대한 특별활동 강사, 유아 교사, 유아, 학부모의 다각적 관점의 비교 연구 결과를 통해 방과 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더욱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둘째, 방과 후 특별활동은 유아에게 학습을 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교과목을 가르치는 의미, 유아교육과정과의 분리된 학습의 의미와 더불어 교과영역 내 통합된 학습의 의미, 놀이학습의 원리를 적용하는 반면 개별화의 원리는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이는 음악, 과학, 영어 수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므로 방과 후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다른 교과목에 대한 방과 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과정에서의 심층적인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방과 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질 높은 방과 후 특별활동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규교육과정의 유아교사와 방과 후 과정의 특별활동 강사와의 협의를 통한 통합적 접근과 더불어 특별활동에 대한 수업환경 개선 및 강사들의 지속적인 연수와 교육이 요구되어지는 결과에 따라 강사의 학력과 연령, 교육 현장 경험, 전공 일치도와 같은 다양한 배경 변인에 따른 프로그램 비교연구 또한 의미를 고찰해 보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이루어졌으므로 타 지역에서의 방과 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 [1] 한은숙, *유아교육기관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태 및 교사인식에 대한 연구*,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13.
- [2] 이정화, 정선화, 이명순, "사립유치원의 특별활동 실태와 문제점,"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0권, 제2호, pp.85-118, 2003.
- [3]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적정 관리방안*, 서울 : 보건복지부, 2011.
- [4]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가이드라인*, 2014.
- [5]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선진화추진계획*, 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2009.
- [6] 박하나, *종일제 특성화 교육활동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공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11.
- [7] 서은경, 광승주, "어린이집 영아 특별활동 실태 및 원장과 부모의 인식 비교," *열린부모교육연구회*, 제9권, 제1호, pp.203-230, 2017.
- [8] 서문희, 최진, 이정림, 최혜선, 조성연, 권인, *보육시설 특별활동 심의 보육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육아정책개발센터, 2009.
- [9] 양옥승, 김진영, 김현희, 김영실, "한국 사립 유치원 영어교육의 실태," *한국아동학회지*, 제22권, 제4호, pp.299-313, 2001.
- [10] 이기숙, 장영희, 장미라, 홍용희, "유치원에서의 특별활동 실시 현황 및 교사의 인식," *아동학회지*, 제23권, 제4호, pp.137-152, 2002.
- [11] 이미화,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2007.
- [12]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보육·교육비용 추정 및 대응 방안 연구*, 서울: 육아지원연구소, 2013.
- [13] 황해숙,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만2세 이상 특별활동 실시에 한 교사 부모 인식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16.
- [14] 김은경, *민간어린이집 교사와 학보모의 특별활동에 대한 인식과 아동의 만족도 비교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12.
- [15] 김옥자,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및 만족도 연구: 성남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11.
- [16] 김지혜,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실태 및 교사와 부모의 인식과 만족도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17] 김한아,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8.
- [18] 박성혜, *어린이집 특별활동 적정 관리 방안 이후 특별활동 실태 및 교사인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12.
- [19] 송강숙, *유아교육기관의 특별활동 실태 및 학부모와 교원의 인식*,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12.
- [20] 진다정, *종일제 특성화 활동에 대한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경험과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11.
- [21] 최수연, *사립유치원 종일제 특별활동 현황 및 담당교사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10.
- [22] 박민정,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 활동에 대한 실태와 교사인식*,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17.
- [23] 김영명, 서영숙, "보육시설과 유치원 특별활동의 현안과 쟁점 : 발달 적합성과 사회·문화적 적합성을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3권, 제2호, pp.115-136, 2006.
- [24] 송정, *유아교육기관 내 특별활동 현황 및 쟁점 발전 방향*, 경기: 경기도 가족여성 연구원, 2011.
- [25] 안혜진, "국가수준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담당 교사의 인식 및 수업의 실제," *한국육아지원학회지*, Vol. 2012 No.10, pp.113-120, 2012.
- [26] 김순환, 이기숙, "유치원 영어수업에서 영어담당교사가 사용하는 교수전략과 유아반응," *유아교육연구*, 제28호, 제5권, pp.247-271, 2008.
- [27] John W. Creswell(2015). *질적연구방법론 - 다섯 가지접근(3판)*, [Qualitative inquiry desine choosing among five aproches] (조흥식, 정선옥, 김진숙 역) 서울 : 학지사 (원저 2007 출판)
- [28] 전홍주,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경험과 인식을 통해서 본 유아 영어교육의 방향," *유아교육연구*, 제29호, 제3권, pp.191-213, 2009.
- [29] 임부연, 최남정, 양혜련, *유아교과교육론*, 공동체, 2010.
- [30] G. Derry, J. C. Laura, and T. D. Diane, *효과적인 영유아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이기숙, 심성경 역),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원판 1993), 1996.
- [31] 박민성, *유치원 특별활동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

식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5.

[32] 강보라, *음악활동과 동작표현을 위한 영유아 음악교육*, 창지사, 2017.

[33] 이선미, 김찬진, “특기적성 외부강사가 인식하는 초등학교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5호, 제2권, pp.321-352, 2008.

저 자 소 개

정 인 선(In-Sun Jeong)

정회원



- 2014년 2월 ~ 현재 : 칼오르프 음악교육센터장
- 2019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수료
- 2019년 9월 ~ 현재 : 목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시간강사

〈관심분야〉 : 유아음악교육, 유아예술교육,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

김 보 립(Bo-Rim Kim)

정회원



- 2008년 3월 ~ 2019년 8월 : 램년 트에듀 연구원
- 2019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수료
- 2019년 9월 ~ 현재 : 용인 송담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 교수매체, 놀이지도, 아동미술

박 지 선(Ji-Sun Park)

정회원



- 2005년 3월 ~ 2011년 12월 : 화랑유치원 교사
- 2014년 2월 : 배재대학교(문학박사)
- 2015년 9월 ~ 현재 : 목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예비유아교사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